

건강한 속사람 X II.

건강한 정서가 없는 신앙은 절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1. 온전함에 대한 이해

[데살로니가전서 5:23]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May God himself, the God of peace,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kept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NIV)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말씀에 보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라 말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신앙관을 볼 수 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 교회와 성도'를 언급한다.

온전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건강함'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함이란 무엇일까? 바울이 생각하는 온전함(건강함)이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blameless)

세상의 완전함과 신앙의 완전함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세상은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도달된 상태, 즉 외적형태를 말한다. 성공도 그와같은 개념이다. 세상은 완전한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에 그 존재가 되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게 될 때, 적어도 모든 것을 지배하는(적이없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신앙의 완전함은 그 반대이다. '내면의 충만함'을 말한다. 내면의 충만함이란 결국 '자기자신'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말한다. 내면의 충만함과 행복을 말한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 남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같은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

[마태복음 13: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나온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얻기 위해 밭을 사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은 내면의 충만함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사람이다. 가치관의 변화를 말한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의 전부와 같은 향유욕함을 갠 여인의 비유도 이와 같다. 여인의 행동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그들의 기준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외적기준에 따라 생각한 제자가 아니라, 자신 내면의 음성에 충만한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다. 여인이 칭찬받은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의 내면에 솔직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온전함이란 '자신의 내면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대하여 자유롭다. 여기서 자유란? '나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 라는 '오만'과 다르다. '자기독선'과 다르다.

자유란? 가치를 발견한 삶, 진리를 발견한 삶, 즉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발견한 삶을 말한다.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내면의 자유를 '팔복'으로 알려 주셨다.

2. 자기확신은 자기성찰과는 다르다.

자기 확신은 자기성찰적 삶을 통한 '자기 의로움'과 다르다. 내가 남보다 다른 삶을 살기에, 더 의미있는 것을 추구하기에, '너희와는 다르다' 라는 확신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을 말한다. 영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적이다. 그래서 정직하다. 분명하다. 숨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상태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연합된 관계를 말한다.

연합의 관계가 죄로 인해 파괴 되었다. 그 시작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탐욕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피하여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숨긴 마음을 말한다.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숨는다.

왜 숨었을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것이 아니다. 자신이 그 두려움을 만든 것이다.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스스로 숨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서로의 잘못을 비난한다.

아담과 하와 어느 누구하나 자신의 내면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하다. 명백한 죄는 있는데 죄인은 없다. 이유는 '죄' 때문이다. 감염된 것이다. 감염되었기에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 죄로 감염된 인간의 반응은

- 1) 자기 내면에 정직하지 못했다 - 수치심과 두려움
- 2) 자기 생존을 위해 남을 이용한다 - 거짓 사실을 만든다.
- 3) 스스로 온전하다 여기고 싶어하는 자기기만적 삶 - 나뭇잎을 만들어 자신의 수치를 가린다.
- 4) 자기기만 (자기를 속이는 삶, 자기부정)의 삶은 가인을 통해 나타나고, 바벨탑을 통해 나타난다. 내면에 대하여 정직하지 않다. 결국 해결이 없다.

3. 율법과 예수님

[로마서 3:19-22]

19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22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1)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게 한다. (정확한 거울 -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한다)

2)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다.

구원이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나를 보는 것이다. 자기성찰과 다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율법 앞에서 완전히 부서진 죄인된 자신을 보는 것이다. 아픔의 시간이다. 그런데 그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도 자기자신이다.

고통은 남의 것이 아니다. 고통의 실재는 내가 고통을 체험하고 있을 때이다. 그래야 의사를 찾을 수 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율법의 거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었다. 온전한 자신을 본 것이다.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결된 온전한 자신을 본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자기성찰'과 다르다. 복음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회복된 자신을 보는 것이다.

3) 복음앞에 선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한다.

어떤 세상기준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겸손하다. 타인에 대하여 자유롭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집중한다. (친밀감이 회복된 존재적 신앙)

[고린도전서 13: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비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견딘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용납된 자신을 보는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갈등하는 사랑없는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을 말한다.

온전함이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비추는 삶을 말한다. 남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에 정직한 삶이 바로 온전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이다.

4.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가난해진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잘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 누군가로부터 판단 또는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 부은 얼굴로 즉각 반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는 다시 반격을 가하거나 상대방의 존재를 아예 무시해 버린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는 비난이나 판단, 모욕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생각한 것 보다 더 영망입니다’“

- 피터 스카지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데살로니가전서 5:23절 신앙의 온전함은 영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 영혼육의 온전함이다. 그런 면에서 정서적으로 온전해야 한다. 온전함은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 건강한 정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온전한 통로가 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이 시대 회복되어야 한다. 남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건강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보게 된다. 건강해야 오래갈 수 있다. 기억하라. 신앙은 장거리 경주이다. 한 번 뛰고 마는 단거리 경주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피터 스카지로’ 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영적으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을 때 오는 신호)

1.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교회 탓, 하나님 탓, 내 탓을 한다.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다.

2.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무시한다.

예전에 내 어머니가 그랬다. 새벽기도 때 영영 우는사람 때문에 기도 방해가 된다고.. 나는 어머니에게 우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3.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한다.

성화의 과정은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 앞만 보고 매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파괴적이고 나쁜 습관을 깨뜨리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다.

4. 우리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한다.

5. 하나님과 동행하기 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6. 갈등을 회피한다.

가짜 평화를 유지한다.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뒤에서 욕을 한다.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다.

7. 상처, 약점, 실패를 은폐한다.

8.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시험에 든다.

9.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다.

10. 자신의 정당한 욕구조차 거부한다.

신앙은 금욕이 아니다.